

민선 6기 첫 외투기업 ‘케이테크코리아’ 공장 매각

과거 광주시 민선 6기 첫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주목받았던 건축 플랜트 전문기업 (유)케이테크코리아 공장이 유찰을 거듭한 끝에 최종 매각됐다. 공장을 낙찰받은 곳은 지역 철강 유통·가공기업인 광일철강㈜으로, 대규모 공장시설과 기계기구를 활용한 생산기반 확대에 나설지 주목된다.

9일 지역 산업계 등에 따르면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광산구 월전동 1047에 위치한 케이테크코리아 공장이 지난달 9일 진행된 광주지방법원 경매에서 205억1만원에 낙찰됐다.

해당 물건은 지지옥션이 발표한 ‘2026년 7월 경매동향보고서’의 전국 낙찰가 상위 10건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낙찰가를 기록했다.

감정가는 272억5532만8320원, 낙찰가율은 75.2%다. 경매에는 2명이 응찰했으며 이 중 광일철강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 공장은 두 차례 유찰된 뒤 3회차 경매에서 주인을 찾았다.

지난 4월 감정가인 272억5532만원에 처음 경매에 부쳐졌으나 유찰됐고, 5월에는 최저 입찰가가 감정가의 70%인 190억 7873만원으로 낮아졌지만 다시 유찰됐다.

두 차례 유찰에 따라 3회차 최저 입찰가는 감정가의 56%인 152억6298만원까지 떨어졌다. 최종 낙찰가는 최저 입찰가보다 약 52억3700만원 높은 205억1만원으로 결정됐다.

해당 공장의 원소유주는 케이테크코리아

두 차례 유찰…광일철강에 205억원 낙찰

철강 유통·가공 연계 생산기반 확대 주목

이다. 중소기업은행이 공장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대출 채권 회수를 위해 경매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장동을 비롯해 창고와 식당, 기숙사, 사무실, 주차장, 기계실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제1의 건물과 관정, 공장 내부에 설치된 호이스트와 크레인 등 기계기구도 매각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공장 내 일부 제1의 기계기구와 태양광 발전설비는 매각 대상에서 제외됐다. 해당 공장은 평동산업단지 내에 위치하

며 차량 진·출입이 용이하다. 북측 인근에는 평동역이 있고, 공장부지가 양북 4차선 이상 도로와 접해 있어 대형 차량을 이용한 물류 이동에도 유리한 입지를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케이테크코리아는 일본 자본이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고층 건축물에 사용되는 내진용 철골 구조물을 생산해 일본에 수출해 왔다.

후판과 형강 등을 특수 용접해 건축물의 기둥과 거더, 보, 빔 등으로 제작하는 기술

을 보유했으며, 일본 대형 건설사인 시미즈건설의 수주 물량을 생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평동산업에 입주한 케이테크코리아는 2014년 11월 광주공장을 개소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당시 광주시는 케이테크코리아를 민선 6기 출범 이후 광주에서 처음 문을 연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소개하기도 했다.

특히 시미즈건설과 대규모 건축 플랜트 수출협약을 체결하며 지역 수출경제를 이끌 기업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최근 공장이 넘어가면서 케이테크코리아의 현재 경영 상황과 향후 사업 지속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공장을 낙찰받은 광일철강은 1994년 설

립된 지역 철강 유통·가공기업이다. 철근과 형강, 철판, 파이프 등을 건설현장과 조선소, 제조업체 등에 공급하고 있으며 철근 절단과 절삭, 프레스 등 가공사업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광주 광산구 오선동에 본사와 철근 가공 공장을 두고 목포와 전북 등에도 사업장을 운영 중이며 매출은 연간 1000억원대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광일철강이 대규모 철골 구조물 생산시설과 크레인 등 관련 설비를 갖춘 케이테크코리아 공장을 인수한 만큼 기존 철강 유통·가공사업과 연계해 생산 능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공장 활용 계획은 확인되지 않았다.

송대용 기자 sdw0918@

홈플러스 67개 매장 영업 재개

가오프 통해 상품 입고 진행

홈플러스가 임시휴업에 들어갔던 67개 핵심 매장의 영업 재개 준비를 본격화하며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 7일 67개 매장이 가오프에 돌입했으며, 오는 12일까지 운영 점검과 보안 작업을 마친 뒤 13일 정식 개장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가오프는 정식 영업에 앞서 실제 매장 운영 환경에서 시스템과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는 최종 준비 단계다.

홈플러스는 이번 점검 기간 동안 매장 운영 전반을 확인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상품 입고율은 약 30% 수준이며, 오는 12일까지 지속적인 입고를 통해 정식 개장일인 13일까지 판매 준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영업 정상화에 대한 고객 관심도 다시 높아지고 있다. 홈플러스는 임시휴업 이후 감소했던 MHC 멤버십 앱 이용자가 최근 개장 일정 안내 이후 크게 증가해 하루 방문자 수가 10만명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해 수준을 넘어선 수치로, 고객들의 영업 재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유통업계에서는 대형마트 영업 재개가 협력업체 매출 회복과 납품 정상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홈플러스가 지난달 영업을 중단했던 전국 67개 점포의 영업을 지난 7일 재개했다. 이날 가오프한 매장들은 오는 12일까지 운영을 점검해 13일부터 정식 개장을 계획하고 있다.

박셀바이오, NK세포 간암 치료기술 대만 특허

간암 임상개발·현지 사업화 기반…글로벌 특허 확대

항암 면역치료제 전문기업 박셀바이오가 자가 자연살해(NK) 세포를 활용한 간암 치료기술의 대만 특허를 확보하며 글로벌 지식재산권 강화에 나섰다.

박셀바이오는 ‘자연살해세포의 신규한 제조방법 및 이를 이용한 간암 치료방법’에 대한 대만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특허는 간암 환자의 말초혈액에서 NK세포를 분리·증식하는 제조방법과 간

동맥항암주입요법(HAIC) 이후 NK세포를 투여하는 간암 치료용 조성물에 관한 기술이다. 특허 권리 범위에는 NK세포의 배양 조건과 제조공정뿐 아니라 투여 일정과 용량, HAIC 병용 치료방법까지 포함됐다. NK세포 제조기술부터 실제 치료 기술까지 포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 셈이다.

대만은 B형·C형 간염 등 만성 간질환의 영향으로 간암 발생률이 높은 국가 중

하나로 꼽힌다. 간암 치료에 대한 미충족 의료수요도 꾸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만은 지난 2018년부터 세포치료 기술을 ‘특별 의료기술’로 규정하고 정식 품목허가 전이라도 지정된 병원에서 환자에게 세포치료를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현재 NK세포를 비롯한 자가 면역세포 치료가 합법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관련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이 비교적 큰 시장으로 평가된다.

박셀바이오는 이번 특허 등록을 계기로 대만 시장에서 핵심 NK세포 플랫폼 기술을 보호하는 한편 향후 임상개발과 현지 사업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전남광주 중소기업 성장판 열린다

중기부, 세제개편안 발표…비수도권 지원 확대

정부가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전남광주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세제 지원 확대에 나선다.

9일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창업·벤처기업 성장동력 확충과 중소기업 지속 성장, 지역 균형발전을 골자로 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비수도권 창업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다.

정부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를 개편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차등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비수도권 점포업 중소기업은 최대 80%,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은 최대 100%까지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할 계획이다.

수도권보다 투자와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전남광주 창업·기술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벤처투자회사의 투자 대상 기업 업력 기준을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고,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과세특례를 상시화한다.

또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산업지

역 벤처기업에 대한 법인의 직접 출자 세액공제율을 기존 5%에서 7%로 높여 지역 투자 확대를 유도한다.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승계 지원도 새롭게 마련됐다.

정부는 친족 중심이던 승계 제도를 넘어 제3자 승계를 지원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해 기업의 주주·출자자분 또는 사업용 자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20% 감면하고, 승계 기업에는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10% 감면한다.

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에 점감 구조를 도입해 유예기간 종료 후 3년간 중소기업 감면율의 50%를 적용, 기업 성장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와 고용 확대를 뒷받침한다.

인력난 해소와 안전 투자 지원도 포함됐다.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기간과 감면율을 확대해 청년과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의 취업을 지원하고, 산업재해·화재 예방시설을 감가상각 특례 대상에 포함해 안전 설비 투자 부담도 줄인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한빛원자력본부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설명회·토론회 개최 공고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36조(원자력발전소, 부지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설치·운영 등)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설명회 및 토론회)에 규정된 바에 따라 「한빛원자력본부 부지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계획(초안)」에 대한 설명회·토론회 개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한빛원자력본부 부지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나.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홍농읍 846 한빛원자력본부 부지내
다. 사업규모 : 총 부지면적 약 19,050㎡
라. 사업기간 : 2023.10. ~ 2030.6.
마. 시 행 자 : 한국수력원자력(주)

2. 설명회·토론회 개최

가. 일시 및 장소(※ 설명회·토론회 시작 30분전부터 입장가능)

지자체명	일시	장소	대상주민
영광군	설명회 (1차) 2026.8.25.(화)14시	홍농 커뮤니티센터	영광군 주민
	(2차) 2026.8.26.(수)10시	군남면 다목적센터	
	(3차) 2026.8.26.(수)15시	영광 호텔다스타(웨딩홀)	
	토론회 2026.9.01.(화)14시	영광 호텔다스타(웨딩홀)	

나. 내용 :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부지내 건식저장시설 설명 및 토론

다. 주의사항

- 대상주민임을 확인 가능한 신분증 등 지참 필수. 타지역 주민은 방문만 가능(별도 공권)
- 원활한 설명회·토론회 운영을 위하여 위험물품 및 화성기, 스프레이 등 음향장이 반입금지
- 참석주민의 자유로운 의사 발언, 초상권 보호를 위해 촬영 및 언론 생중계(유튜브 등) 금지

※ 단, 시행자는 기록 유지를 위해 영상 촬영, 예연, 공방방송 촬영 필요시 사진 촬영의 필

3. 주민의견 제출

가. 대상 : 설명회·토론회에 참석하고자 하는 의견수렴 대상지역(영광군) 주민
나. 내용 : 설명회·토론회 시 설명이 필요한 사항 및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
다. 방법 : 아래 주민의견제출서 접수장소에 비치된 양식을 이용·작성하여 기한 내 서면 신청
라. 장소 및 기한

대상지역	설명회·토론회 주민의견제출서 접수장소(문의처)	진술신청 기한
광동	한빛원자력본부 PA추진팀 ☎ 061-357-7464	개회 5일 전까지
영광군	영광군 안전관리과 ☎ 061-350-5483	

한국수력원자력(주)
Korea Hydro & Nuclear Power Co., Ltd.

광주지방법원 판결공시

제 1심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24고38686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박춘상 위 피고인은 식품위생법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동원사건이 확정되었으므로 민소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6년 7월 29일

판사 서지혜

나의 소통코스

종합광고솔루션 - 나코스(유)

www.nacos.co.kr NAVER 나코스 검색

1004섬 신안 신의도 찰나를 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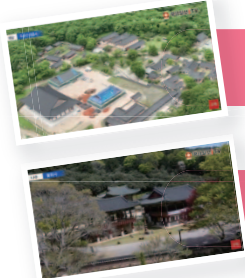
★구글이미지가 있어서 구독하실수 있습니다

광남일보 iTV

구독·좋아요·알람 설정까지!!



광남일보 iTV 프로그램



• 호국목 자초의 성지, 전남 두륜산 대동사

• 나주지역 포교의 중심도량 덕륜산 불희사

광고·사정문의 062)370-7077